

106 인공일반지능 /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적 과제를 이해·학습·추론·계획하여 수행하는 AI

- 특정 과제에 한정되지 않고 지식을 전이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자율 지능
- 미래 AI의 지향점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다뤄지는 개념으로, 실현 가능성·영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

인공일반지능 개요

인공일반지능(AGI)은 인간의 지능처럼 여러 영역의 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AI를 말합니다. 현재의 AI가 번역, 이미지 인식 등 특정 작업에 한정된 협의의 AI(Narrow AI)라면, AGI는 분야의 경계를 넘어 지식을 통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향합니다. 즉,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복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용적 사고 능력을 목표로 합니다.

인공일반지능의 특징

AGI의 핵심 특징은 범용성과 적응성입니다. 범용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지식을 전이해 활용하는 능력이며, 적응성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학습 전략을 스스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 AGI는 언어, 시각, 감정, 논리 등 여러 형태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험을 통해 목표를 재설정하고 사고 방식을 개선하는 자기 학습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AI는 여전히 주어진 목표와 데이터에 의존하며, 인간처럼 맥락을 해석하고 의도를 추론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인공일반지능의 전망

AGI가 구현되면 인간은 사고와 판단의 일부를 AI에 위임하게 되어, 사회 전반의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과 창의성이 향상될 수 있지만, 고도화된 추론 능력을 가진 AI 시스템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통제 범위를 벗어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AGI 개발의 중심은 기술적 성취보다 안전성과 윤리적 책임 확보로 이동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위한 정책과 규제 논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일반지능의 쟁점

쟁점 중 하나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일부는 LLM과 멀티모달 AI의 발전이 이미 AGI의 초기 단계라고 주장하지만, 인간의 의식이나 자율 판단이 단순 계산으로 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됩니다.

더 큰 쟁점은 통제 가능성입니다. AGI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행동한다면, 인간이 그 추론 과정을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논의는 단순히 "AGI를 만들 수 있는가"에서 "AGI를 어떻게 안전하게 공존시킬 것인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